

# 인도의 얼음냉수 제 46 호

배준석 김현옥 손모음 편지

카카오톡 ID : baejunseok1026

연락 이메일 : [peter1026@hanmail.net](mailto:peter1026@hanmail.net)

## 1.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긴급하게 도움 및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와 함께 동역했던 메리 자매가 천국에 가고 그녀의 두 딸(마날리, 스투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기철에 폭우로 인해 두 딸이 살던 집이 무너졌습니다. 집 지붕이 전부 뜯어져서 도저히 자매들 힘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녀가 다니는 교회도 너무 가난한 교회이다 보니,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기도편지를 보시고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분은 이 두 자매를 위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엄마를 여의고 두 자매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곳곳히 살아가는 이 두 자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가난한 인도 성도들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분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990-014705-181 KPM 배준석

후원을 보내주실 때 “구제목적 헌금” 이라고 하시고 보내주시면 모든 금액은 자매들의 집을 복구하고 수리하는 곳에 쓰여질 것입니다.

## 2. CCM(어린이 사역자 훈련학교) 6월에 오픈 하였습니다.

드디어 6월부터 어린이 사역자 훈련학교가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10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서 약 6개월 동안 함께 숙식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스리랑카 학생 2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사역자를 훈련하면서 외국인 자매는 처음 입학하게 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바로 아래 있는 섬나라이며 지리적으로는 인도와 가까운 나라이지만 종교와 문화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주류종교이지만 스리랑카는 불교국가입니다. 이곳에도 수 많은 어린이들이 있기에 이 두 자매가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고 돌아가 스리랑카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주중에는 학교에서 함께 이론 수업과 실습수업을 중심으로 훈련받고, 주말에는 5개의 교회와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곳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먼 시골 지역에도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오고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1.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2. CCM(어린이 사역자 훈련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 귀한 어린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3. 마날리와 스투티의 집 지붕이 무너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집이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4. 이 두 자매(마날리, 스투티)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5. 배준석 김현옥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최근들어 저와 제 아내가 기력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역을 하는데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관리도 지혜롭게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마날리, 스튜티 폭우 피해 현장



CCM 오리엔테이션



동역하는 스텝들



시골지역 어린이 사역



만들기 실습 수업



어린이 전도 스킷 드라마 연습